

'아동도서 베스트셀러'의 허실

'명랑물'이 주류...외국소설 번안물에도 문제점

최근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아동도서 베스트셀러'의 일부 책을 둘러싸고 우려의 소리가 높다. 2, 3년전부터 베스트셀러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명랑소설'이 급격한 붐을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마구 쏟아지자 그 내용의 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광고에 의존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도 일부 있어, 어린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베스트셀러가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북'이 되기 위해선 좀더 '주체성 있는 책 고르기'가 필요할 듯하다.

'철학동화' '성교육동화'류도 인기

대형서점들마다 집계해놓은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교보문고와 종로서적, 을지서적 등에서 '4월중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로 뽑은 책은 모두 18종. 이들은 대략 몇가지 경향의 책들로 묶여진다. 우선 '명랑물'의 성격을 띤 책이 8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적 의미를 담은 '철학동화'와 '성교육동화'도 상당수이며, 외국동화류도 두세권 정도 포함된다. 이밖에 만화로 풀이한 천자문 등 기타의 책들이 한두권 있다.

'명랑물'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각 서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으로 꼽혔던 '선생님은 괴짜를 좋아해'(김복춘 외, 대교문화)와 울초에 나온 '꿀지안녕'(임교순 외, *)이 여전히 1, 2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비교적 현실감 있는 소재와 다양한 이야기 전개로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명랑전래동화 20편을 모은 '훈장님 훈장님 우리훈장님'(조주청, 지구마을)도 코믹한 줄거리를 엮어 어린이들의 손길이 잦은 편. 이밖에 '수수께끼 러브레터사건'(나케다 게이코, 문공사)과 '괴짜양반'(김원석, 대교문화), '뿔뚜기의 비밀'(이기창 외, *), '귀신한테 홀린 아이'(조병규, *) 등이 포함돼 있다.

명랑소설 다음으로 '철학동화'와 '성교육동화'도 인기가 높은 편. '어린이도 철학을 할 수 있다'는 테마를 내건 '노마의 발견' 시리즈(철학교육연구회, 해냄출판사)는 지금까지 나온 3권 모두 번갈아 베스트셀러에 올라 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생각하는 어린이들'(송명호, 글수레) 역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철학적 사고로 이끄는 이야기를 모은 책. 한편 성교육동화 '열두살의 봄'(이상교, 대교문화)은 성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 조숙한 아이를 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외국소설류의 경우, 성인들에게도 화제가 됐던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글수레, 예림당, 경원각, 바른사)와 르네 고시니의 「꼬마 니콜라」(지경사, 바른사, 臣岩),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예림당, 지경사, 경원각) 등이 여러 출판사에 의해 경합출판되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른바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는 과연 어린이에게 권할 만한가. 베스트셀러가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북'이 되기 위해선 '좋은 책'을 쓰고, 만들고, 또 골라주는 사회 전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어 계속 베스트셀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만화로 배우는 고사성어」(경원각)와 「만화천자문」(황인환, 국일문화사) 등은 '만화'를 매개로 한자와 고사성어를 풀이해 어린이의 흥미를 끈다. 유일하게 어린이가 직접 쓴 글모음이 있어 이채로운데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수기를 모은 「혼자도는 바람개비」(김남석 외, 한국어린이재단)가 그것.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전한다.

'가벼운 읽을거리' 찾는 독서태도 반영

이같은 베스트셀러의 동향은 곧 어린이의 책읽기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보문고에서 자녀의 책을 고르던 김영희씨(주부, 역삼동)는 베스트셀러들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어린이 독서의 편향성을 염려했다. "잘 팔리는 책들은 거의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동화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이야기라든가 위인전 등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들도 지도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쉽게 만들어 잘 팔릴 수 있는 내용에만 관심을 두는 출판사들의 반성을 바랐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명랑소설'에 대한 논란은 '가벼운 읽을거리'만 찾는 어린이의 편향된 독서태도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 아동문학가 조대현씨는 명랑소설에 대한 어린이들의 최근 성향을 "심각한 것, 감동적인 것, 마음의 깊은 곳을 울려주는



최근 일부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를 둘러싼 논란의 파고가 높게 일고 있다. 우선 '좋은 책'을 쓰고, 만들고, 골라주는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다.

내용보다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실 명랑소설은 딱딱하고 교훈적인 내용만 접하게 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유머 감각을 익히게 하는 중요한 아동문학 장르이기도 하다. 다만 TV와 잡지문화에 의해 편안하고 가벼운 것만을 즐기려는 아동의 취향에 영합하는 알팍한 상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장충국민학교의 이주영교사(35)는 요즘 인기있는 명랑소설에 대해 "마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다. 내용구성이 신중하지 못하고 어린이의 생활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며, 비어·속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어린이의 심성을 저절로 이끌기 쉬운 책들도 광고에 의존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명랑소설에 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일련의 '교육동화'들. 진진한 연구토대 없이 '철학'의 이름만 붙인 동화들까지 나와 부모의 판단에 혼란을 준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마치 철학인 양 꾸민다든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사고방식을 유도하고 있는 '모방철학동화'들이 많아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성교육동화의 경우, 사실만 간단히 언급해도 좋을 내용을 억지로 이야기를 불려 엉뚱한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의 소설을 번안한 책들에 대한 걱정도 소리가 또한 높다. 여러 군데서 중복출판하는 낭비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고치는데 따른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쉬운 어휘로 바꾸거나 내용을 줄이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책들은 원전의 감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칫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잘못된 독서 습관이 들기 쉽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좋은 책' 쓰고 만들고 골라주는 노력들

아동도서 베스트셀러는 그것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데 더 큰 경계심을 자아낸다. '베스트셀러=베스트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가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북'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교보문고의 정석희홍보과장은 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첫째로 꼽는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 고르는 방법을 지도하는 등 좀더 사려깊은 열의가 필요하다. 책내용은 살피지도 않은 채 제목만 보고 사가는 부모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부모들 스스로도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문학가 이오덕씨는 베스트셀러의 문제점을 사회전체의 보살핌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라면 일단 신뢰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곧 '좋은 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좋은 책'을 쓰고, 만들고, 골라주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린이에게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어린이들이 읽는 책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내야 할 것이다.

—김지원 기자